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9. 9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주담대 20% 늘 때 연체는 120% 급증
한국경제 https://zrr.kr/hfsjyh

2023년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0% 늘어나는 동안 연체 규모는 120% 증가
금리 상승으로 대출액보다 대출 부실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던 셈

KB금융, 11일 차기 회장 결정…양종희 연임에 쏠리는 눈
뉴시스 https://zrr.kr/a6Hbzq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가 오는 11일 결정되며, 현직인 양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지 관심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와 인공지능 전환(AX), 비은행·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향후 3년간 성장 전략과 실행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

카카오뱅크, 車금융·주식까지 품었다…플랫폼 확장 지도 보니
블로터 https://zrr.kr/kYigYc

카카오뱅크가 자동차 금융 비교, 주식 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잇달아 추가하며 플랫폼 사업 수익화에 속도
고객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예대마진 의존도를 낮추고 비이자 수익원을 다변화하려는 전략

‘예금 큰손’ 50대 이상, 은행 고객 절반…수신자산 3분의 2 쥐었다
헤럴드경제 https://zrr.kr/HwFXj3

5대 시중은행 고객 중 50대 이상이 보유한 수신자산은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
시니어 고객의 영향력이 커지자 은행들도 예·적금 유치를 넘어 연금과 은퇴설계, 상속·증여, 요양·돌봄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며 고객 확보에 나서는 모습

증시 반등에 1차 수익률 -3.7%→-1%대…2차 국민성장펀드 흥행 이어갈까
뉴스1 https://zrr.kr/RlSaqp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1차 상품의 수익률이 증시 회복에 힘입어 -1%대까지 올라서며 지난달 한때 -3%대까지 떨어졌던 손실 폭을 상당 부분 만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할 예정으로, 1·2차를 합하면 국민 투자금은 총 1조2000억원

고액 자산가도 IMA로… 증권사들 ‘연 5%’ 경쟁
조선일보 https://zrr.kr/cdM19c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1차 상품의 수익률이 증시 회복에 힘입어 -1%대까지 올라서며 지난달 한때 -3%대까지 떨어졌던 손실 폭을 상당 부분 만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할 예정으로, 1·2차를 합하면 국민 투자금은 총 1조2000억원

동양생명 과징금 급감 '널뛰기 부과' 논란
머니투데이 https://zrr.kr/XJ6xHn

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당초 140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할 것으로 전해져
동양생명은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넘는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당국은 신정법상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도 검토

돈안되는 방카…손보 청약철회율 15% 육박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wwHK2Z

국내 손해보험사 10곳 중 7곳은 최근 2년간 방카슈랑스(은행판매보험) 청약철회율이 10%를 넘는 모습
보험사들이 수익성 낮은 저축성 보험 판매에서 손을 떼 신계약 자체가 감소했고, 고객들은 증시 바람을 타고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현상이 확산된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

“퍼블릭 블록체인 사실상 차단”…예탁원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업계 ‘우려’
매일경제 https://zrr.kr/JYeaOc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로드맵에 발맞춰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놓은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분산원장 기술의 구현 방식까지 통제하는 규제 방향이 한국 시장을 글로벌과 단절된 시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의견

“ETH 없이도 토큰 사용”…이더리움 거래방식 확 바꾼다
이데일리 https://zrr.kr/L5wg22

이더리움이 사용자가 ETH를 보유하지 않고도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거래 구조 개편을 추진
이번 변화가 현실화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를 대신해 가스비를 처리할 수 있어, 일반 이용자들이 이더리움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